

大韓外官科學會誌 : 第14卷 第2號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Vol. 14, No 2, December 2001.

## 黃帝內經을 通해 본 皮膚에 관한 내용의 考察

文壯元\* · 金 勳\*\* · 高祐新\*

### ABSTRACT

### A Literatual study on the Skin in HWANG JE-NAE KYEUNG

Moon jang-won · Kim hoon · Ko woo-shin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

1. The skin in Oriental Medicine is the tissue located at the most outside of the body, which first reacts to the Yuk-gi(六氣) of nature.
2. Sagi(邪氣) don't react to the skin until passes the Homo(毫毛), Hangong(汗孔) and Juli(腠理).
3. The concept of the skin in Oriental Medicine includes Homo(毫毛), Hangong(汗孔), Juli(腠理), Hair, Mustache, Nail and also coincides with that of modern medicine.
4. The skin is connected with each other systematically through the internal the Five Vital Organs and the Six Viscera and Kyung-Maek (經脈), and fulfills its function by dividing whole body into twelve portion.
5. In the Five Vital Organs and the Six Viscera, lung and skin are corresponding to the Heaven, also interacts with each other.

---

\*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學教室

\*\*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6. According to the internal condition of Jeong-ki(正氣), the defense mechanism of the skin expresses its typical signs such as Pruritus, Soring(痺症), Insensibility(不仁症)

7. Large intestine have a function controlling the skin status and we also figure that Pancreas, Samcho(三焦), Urinary bladder, and Wigi-Young hyul(衛氣營血) contribute to the normal circulation, metabolism of the skin.

## I. 緒 論

韓醫學에서 말하는 皮毛란 一身의 表部, 즉 皮膚와 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피지선(皮脂腺)이나 땀샘(汗腺) 등을 총괄하는 말로써 外邪의 侵入을 막아내는 가리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皮毛는 汗液을 分泌하고 皮膚를 潤澤하게 하며 外邪에 抵抗하는 등의 機能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가 衛氣作用의 결과이다.<sup>1)</sup> 그의 부속 기관적인 명칭으로 腠理, 汗孔, 毫毛, 爪甲 등의 용어들이 黃帝內經 素問과 靈樞를 통하여 包括적인 概念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現代의인 개념에서의 皮膚(skin)는 人體를 가장 外部에서 둘러싸고 있는 組織이다. 皮膚는 우리가 흔히 인식하듯 단순한 '살갓질'이 아니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에서부터 기름덩어리인 피하지방까지를 포함하는 거대한 조직이다.<sup>2)</sup> 皮膚는 단순히 몸을 덮어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도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몸 속의 다른 내장처럼 하나의 중요한 기관으로 분류된다. 皮膚는 해부학적으로 표피(表皮, epidermis), 진피(眞皮, dermis) 및 피하지방층(皮下脂肪層, subcutis, panniculus adiposus)의 3가지 층으로 구성되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하며 皮膚의 기능을 수행한다.<sup>3)</sup>

本考에서는 黃帝內經의 素問과 靈樞에서 언급하는 皮膚와 관련된 내용들을 聚合해 살펴봄으로써 韓醫學의인 皮膚의 概念과 機能 그리고 五臟六腑와의 相關關係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本 論文의 研究는 黃帝內經에 기재되어있는 들어있는 皮膚에 關聯된 內容들에 對하여 각각의 文章 속에서 皮膚라는 概念이 어떠한 범주 속에서 어떠한 機能을 가지고 五臟六腑와 人體의 生理·病理의인 面에서 作用과 그 役割을 擔當하는지를 考察하여 整理하여 보았다.

1. 原文은 洪元植의 《精校 黃帝內經素問·靈樞》를 底本으로 하였고, 黃帝內經에서 피부와 관련된 文章을 編題順으로 발췌하였다.

2. 각 拔萃된 文章을 내용은 李慶雨의 《譯解編注 黃帝內經素問·靈樞》註釋書를 참고하여 [直譯]을 하였고, 그에 따른 (字句解)를 붙였으며, 各家의 學說들 중에서 皮膚와의 연관된 內容들을 意譯을 하여 [校註]로 붙였으며, 총괄적인 韓方 生理學的·病理學的인 [考察]을 붙이는 방식을 취했다.

1) 《臟腑變證論治》金完熙 外, 成輔社, 서울, 1985, p.251.

2) 《인체 구조와 기능》Elaine N. Marieb, 계축문화사, 서울, 2001, p.97.

3) 《피부과학》강원형외,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서울, 2001, p.1.

3. (字句解)는 ①, ②, 등의 원문자 기호로 표기 하여 해당 篇 내에서만 連番을 붙여나갔고, [校註]는 [ ]의 표기법을 사용하여 「素問」과 「靈樞」를 따로 하여 連番을 붙여나갔다.

4. [校註]는 王水, 馬蒔, 張志聰 張介賓, 陽上善, 素問匯粹 등을 참조하고 原文을 意譯하여 註를 달았다.

5. 考察의 방향은 皮膚의 概念과 構造 그리고 機能, 五臟六腑와 皮膚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考察하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皮膚와의 相關성 및 한의학적인 皮膚의 概念과 그 범주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Ⅲ. 本 論

#### 1. 黃帝 內經 素問

[原文] <素問·湯液醪醴論 第十四>

“帝曰 夫病之始生也 極微極精<sup>[1]</sup> 必先入結於皮膚”

[校註]

[1] 極微極精 : 張介賓<sup>4)</sup>“極微者 言輕淺未深. 極精者 言專一未亂 斯時也”이라고 하였고, 高士宗<sup>5)</sup>“微, 猶輕也; 精, 猶細也”라고 하였고, 楊上善<sup>6)</sup>“精, 謂有而不虛也 但有病在皮膚 微小精實不虛 若不療者 定成大病 故良工稱爲病成” 등 주석가들은 ‘輕微하여 治療하기 容易함’으로 풀이하고 있다.

- 4) 《類經(上·下冊)》 張介賓 原著, 서울, 大星文化社, 1982.
- 5) 《黃帝內經素問校注匯粹》 金圭烈 編譯, 서울, 一中社, 1998.
- 6) 《黃帝內經太素》楊上善 注, 서울, 大星文化社, 1986.

[考察]

病이 처음 생겨날 때의 情況이 지극히 微細하고 精微하여 알아내기 힘들지만, 반드시 먼저 皮膚로부터 侵入을 하는 것으로 보아 ‘皮膚는 人體의 가장 外廓을 防禦하는 概念으로 表皮全體를 감싸는 一次 防禦의 組織’임을 말하고 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무릇 病이 처음 생길 때에는 병세가 매우 미약하면서 단순하되 반드시 제일 먼저 皮膚에 침입하여 울걸됩니다.”

[原文] <素問·玉機眞藏論 第十九>

“今風寒客於人 使人毫毛畢<sup>①</sup>直<sup>②</sup> 皮膚閉而爲熱 當是之時 可汗而發也.”

(字句解)

① ‘畢’은 모두(皆)이자 다(盡)이다.

② ‘直’은 세로로 곧추서서 일어남이다.

[校註]

[2] 張介賓은 “風寒이 皮膚에 侵入하면 腠理가 閉密하므로 毫毛가 모두 곧아진다(直). 寒邪가 밖을 團束하면 陽氣가 疏泄할 곳이 없으므로 鬱結하여 熱이 난다. 이때에는 寒邪가 처음으로 表에 적중한 것이므로 汗을 내어 낮게 할 수 있다 (風寒客於皮膚 則腠理閉密 故毫毛盡畢. 寒束於外 則陽氣無所疏泄 故鬱而爲熱 斯時也 寒邪初中在表 故可取汗而愈)”라고 하였다.

[考察]

風寒이 皮膚에 侵入하면 腠理가 閉密하므로 毫毛가 모두 곧아진다는 말에서 皮膚의 조직속에 부속적으로 毫毛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皮膚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皮膚 자체의 상태가 변화함을 나타내고 있다.

[直譯]

지금 風寒의 邪氣가 사람에게 침입되면 사람의 毫毛를 모두 곧추서게 하고, 皮膚가 閉密해져서(陽

氣가 發散하지 못하게 하여) 熱이 나게 되는데, 이런 때를 당해서는, 땀을 내서(邪氣를) 發泄시킬 수 있습니다.

[原文] <素問·經脈別論 第二十一>

“故曰 診病之道 觀人勇怯 骨肉皮膚 能知其情 以爲診法也.”<sup>[3]</sup>”

[校註]

[3] 張介賓：“勇함에는 氣가 남음이 있음을 살필 수 있으며, 怯냄에 있어서는 그 氣가 不足함을 살필 수 있으며, 骨로는 腎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肉으로는 脾의 상태를 살필 수 있으며, 皮膚로는 肺의 상태를 살필 수 있으니, 보아서 그 病의 情況을 알 수 있어야 곧 診察을 잘 하는 사람이다.(勇可察其有餘 怯可察其不足 骨可以察腎 肉可以察脾 皮膚可以察肺 望而知其情 卽善診者也)”

馬蒔<sup>7)</sup>：“이미 사람의 勇怯·骨肉·皮膚를 살펴서 또한 肺에 病이 있는지, 脾를 해쳤는지, 心이 손상 당했는지, 腎에 邪氣가 留着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면 診察하는 法이 갖추어진 것이다.(既觀人之勇怯骨肉皮膚 而知病肺·害脾·傷心·着腎病之詳 則診法備焉矣)”

[考察]

診法의 方法 가운데 皮膚는 人體에 나타난 病의 情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직이며, 狹義의으로는 肺의 狀態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므로 皮膚는 人體 肺기운의 運行을 반영하는 조직임을 알 수가 있다.

[直譯]

그러므로 病을 診察하는 方法은 사람의 勇怯(體質의 強弱)과 骨肉·皮膚의 狀態를 관찰하여 그 情況을 알아낼 수 있어야 (훌륭한) 診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原文] <素問·瘧論 第三十五>

“此皆得之夏傷於暑 熱氣盛 藏於皮膚之內 腸胃之外 此榮氣之所舍也. 此<sup>①</sup>令人汗空<sup>②</sup> 腠理開 因得秋氣 汗出遇風 及得之以浴 水氣舍於皮膚之內 與衛氣並居 衛氣者盡日行於陽 夜行於陰 此氣得陽而外出 得陰而內薄 內外相薄 是以日作.”

(字句解)

① ‘此’는 여기서 暑氣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

② ‘空’은 孔과 같으니, ‘汗空’은 즉 汗구멍(汗孔)이다.

[考察]

暑邪는 皮膚의 안과 腸胃의 밖에 伏藏하고 있는데, 이는 곧 營氣가 깃들어 있는 곳으로 이 잠복된 邪氣는 汗孔 즉 汗구멍을 성글게 하여 결과적으로 腠理를 열리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 汗孔의 개념이 腠理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人體內部的 상태와 衛氣의 作用에 따라 皮膚의 汗孔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直譯]

이 病(瘧症)은 모두 여름철 暑邪에 손상되어 熱氣가 熾盛하다가 皮膚의 안과 腸胃의 밖에 잠복됨으로 인해 걸린 것이니, 이곳(皮膚의 안과 腸胃의 밖)은 榮氣가 머물러 있는 곳이다. 이것(暑氣)은 사람에게 汗구멍을 소통시켜 腠理가 열리게 하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만나거나 땀을 흘린 후 바람을 쐬거나 (찬물로) 목욕을 함으로 인해 水氣가 피부의 속에 침입하여 衛氣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衛氣는 낮에는 陽分을 행하고 밤에는 陰分을 행하는데, 이 瘧氣가 낮의 陽氣를 만나면 외부로 나왔다가 밤의 陰氣를 만나면 내부로 침입하여 內外에서 (精氣와) 서로 다투게 되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날마다 發作하는 것입니다.

[原文] <素問·瘧論 第三十五>

“帝曰 瘧先寒而後熱者何也.”

7)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明·馬元臺張隱庵合註,中國,台聯國風出版社, 1970.

“岐伯曰 夏傷於大暑 其汗大出 腠理開發 因遇夏氣 淒滄之水寒<sup>[4]</sup> 藏於腠理皮膚之中 秋傷於風 則病成矣<sup>[5]</sup> 夫寒者 陰氣也 風者 陽氣也 先傷於寒而後傷於風 故先寒而後熱也 病以時作 名曰寒瘧。”

[校註]

[4] 張介賓：“물에 목욕하여 서늘함을 타는(乘涼) 類이다.(浴水乘涼之類也)”

張志聰<sup>[6]</sup>：“風寒을 일러 ‘淒’라 하고, 水寒을 일러 ‘滄’이라 한다.(風寒曰淒, 水寒曰滄)”

[5] 張志聰：“水寒이 腠理皮膚의 中에 저장되어 있다가, 가을에 이르러 다시 風에 손상당함에 風과 寒 둘이 感觸되니, 이 때문에 寒熱의 病이 이루어진다.(水寒藏於腠理皮膚之中 至秋時復傷於風 風寒兩感 是以寒熱之病成矣)”

[考察]

皮膚는 外感六氣의 영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人體의 體溫을 조절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皮膚와 腠理의 방이전이 弱화될 때에는 邪氣가 머무르게 되는 곳이 되기도 하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瘧이 먼저 惡寒하다가 뒤에 熱나는 것은 어째서 인지요?”

岐伯이 말하길 “여름철에 大暑에 손상되어 그 땀이 크게 나고 腠理가 열리는데, 그로 인하여 (찬 물로 목욕 등을 했을 때) 夏氣 中의 차가운 水氣나 寒氣를 만나면 邪氣가 腠理皮膚중에 잠복되어 있다가 가을에 風氣에 손상 당하면 病이 이루어집니다. 대저 寒한 것은 陰氣이고 風은 陽氣이니, 먼저 寒氣에 손상되었다가 뒤에 風邪에 손상되었기 때문에 먼저 惡寒하다가 뒤에 熱이 나게 되며, 病이 때에 따라 발작하여 寒瘧이라고 합니다.”

[原文] <素問·咳論篇 第三十八>

8) 《黃帝內經素問集注》清·張隱庵 集注,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1991.

“黃帝問曰 肺之令人欬何也.”

“岐伯對曰 五臟六腑皆令人欬 非獨肺也<sup>[6]</sup>”

“帝曰 願聞其狀.”

“岐伯曰 皮毛者肺之合也 皮毛先受邪氣 邪氣<sup>①</sup>以從其合也<sup>[7]</sup> 其寒飲食入胃 從肺脈上至於肺 則肺寒 肺寒則外內合邪 邪因而客之 則爲肺咳. 五臟各以其時受病 非其時各傳以與之. 人與天地相參 故五臟各以治時 感於寒則受病 微則爲咳 甚者爲泄爲痛. 乘秋則肺先受邪 乘春則肝先受之 乘夏則心先受之 乘至陰則脾先受之 乘冬則腎先受之.”

(字句解)

① ‘邪氣’는 밖에 있는 風寒의 邪氣를 가리킨다.

[校註]

[6] 張志聰：“肺는 氣를 主掌하며 位相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모든 脈으로부터 朝會를 받는다. 咳嗽가 비록 肺症이긴 하나, 五臟六腑의 邪氣는 모두 위로 肺에 歸結되니 咳嗽病이 될 수 있다.(肺主氣而位居最高 受百脈之朝會 是欬雖肺證 而五臟六腑之邪 皆能上歸於肺而爲欬)”

[7] 張介賓：“邪氣는 風寒이다. 皮毛가 먼저 邪氣를 받으면 곧 肺로 들어간다. 따라서 그 痏(合)을 좇아 간다.(邪氣風寒也 皮毛先受之 則入於肺 所以從其合也)”

[考察]

皮毛는 肺의 痏(合)이므로 皮毛가 먼저 風寒의 邪氣를 받으면 邪氣는 그 痏인 肺를 따르게 되고, 寒한 飲食이 胃에 들어가 그 邪氣가 肺脈에 影響을 주면 안팎으로 합해진 邪氣가 肺咳를 일으키게 된다. 이를 통해 皮毛는 肺와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直譯]

黃帝께서 물어 말씀하시길 “肺가 사람으로 하여금 咳嗽하게 함은 어째서 인지요?”

岐伯이 말하길 “五臟六腑가 사람으로 하여금 咳嗽하게 하니, 유독 肺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咳嗽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원컨대 그것의 情狀을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말하길 “皮毛는 肺의 배합되니, 皮毛가 먼저 邪氣를 받으면 邪氣는 그 배합하는 肺를 쫓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도 또 그 찬 飮食이 胃에 들어와 肺의 經脈을 따라 올라가 肺에 이르면 肺가 寒冷해지니, 肺가 寒冷해지면 외부와 내부에서 寒冷한 邪氣가 합쳐지고 그로 인해 肺에 침입하면 肺咳가 됩니다.

五臟은 각기 그 主掌하는 바의 時令에 病을 받는데, 그 때가 아니면 각기 病邪를 肺에 傳해줍니다. 사람은 天地와 더불어 서로 參與하는 고로 五臟은 각기 때에 맞게 다스려지지만 寒邪에 感觸되면 病을 얻게 되는데, 微微하면 咳嗽하며, 심하면 泄瀉하고 疼痛하게 됩니다.

時令이 秋를 타면 肺가 먼저 邪氣를 받고, 春을 타면 肝이 이를 먼저 받으며, 夏를 타면 心이 먼저 이를 받고, 四時에 寄旺하는 至陰을 타면 脾가 먼저 이를 받으며, 冬을 타면 腎이 먼저 이를 받습니다.”

[原文] <素問·舉痛論 第三十九>

“寒則腠理閉 氣不行 故氣收矣<sup>[8]</sup> 炅則腠理開 榮衛通, 汗大泄 故氣泄.<sup>[9]</sup>”

[校註]

[8] 王冰<sup>9)</sup>: “腠’는 津液이 滲泄하는 곳을 이른다. ‘理’는 文理(나무에 있어서 나무결의 무늬가 있듯이 肌肉에 있어서의 살결무늬를 지칭함)가 만나는 곳을 이른다. ‘閉’는 密閉함을 이르며, ‘氣’는 衛氣를 이르고, ‘行’은 流行함을 이르며, ‘收’는 收斂함을 이른다. 몸이 차가워지면 衛氣가 잠기므로 皮膚의 文理와 滲泄하는 곳이 모두 閉密서 氣가 流行하지 못하여 衛氣가 안으로 收斂해서 發散하지 못한다.(腠,

9) 《黃帝內經素問靈樞》王冰註, 서울, 大城出版社.

謂津液滲泄之所. 理, 謂文理逢會之中. 閉, 謂密閉. 行, 謂流行. 收, 謂收斂也. 身寒則衛氣沈 故皮膚文理之處 皆閉密而氣不流行 衛氣收斂於中而不發散也)”

張介賓: “寒氣가 밖에서 束縛한즉 玄府가 닫혀서 막히고 陽氣가 펼쳐지지 못하므로 안으로 收斂해서 능히 發散하지 못한다.(寒束於外 則玄府閉密 陽氣不能宣達 故收斂於中而不得散也)”

[9] 張志聰: “氣는 陰을 堅固하게 하고 陰은 陽을 지킨다. 熱나면 腠理가 열려 汗이 많이 새나가며 陽氣가 그를 따라서 밖으로 새나간다.(氣爲陰之固 陰爲陽之守 炅則腠理開 汗大泄 則陽氣從而外泄矣)”

[考察]

皮膚는 寒熱, 즉 외부의 온도변화에 대하여 人體의 體溫調節을 하는 기능을 擔當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直譯]

너무 추우면 腠理가 닫혀 衛氣가 아래로 流行하지 못하게 되니 衛氣가 수렴됩니다. 너무 더워지면 腠理가 열려 營衛가 잘 통하여 汗이 크게 發泄되니 陽氣가 누설됩니다.

[原文] <素問·痺論 第四十三>

“帝曰 榮衛之氣 亦令人痺乎.”

“岐伯曰 榮者水穀之精氣也 和調於五臟 灑陳<sup>①10)</sup>於六腑 乃能入於脈也. 故循脈上下貫五臟 絡六腑也. 衛者水穀之悍氣也. 其氣慄疾滑利 不能入於脈也. 故循皮膚之中 分肉之間 熏於膏膜 散於胸腹 逆其氣則病 從其氣則癒 不與風寒濕氣合 故不爲痺.”

“帝曰 善. 痺 或痛 或不痛<sup>10)</sup> 或不仁 或寒 或熱 或燥 或濕 其故何也.”

“岐伯曰 痛者寒氣多也 有寒故痛也. 其不痛不仁者 病久入深 榮衛之行澀 經絡時疏 故不通 皮膚不營 故

10) 『新校正』에서는 “甲乙經을 살펴보면 ‘不通’이 ‘不痛’으로 되어있다.”라고 하였다. 전후문장의 의미상 ‘不痛’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爲不仁<sup>②[11]</sup>”

(字句解)

① ‘灑’는 물을 흘뿌림을 이른다. ‘陳’은 布陳(퍼서 진열함)한다는 뜻이다. ‘灑陳’은 곧 퍼서 흘트린다(布散)의 뜻이다.

② ‘不仁’은 頑固하게 麻痺되어 통증이나 가려움을 느끼지 못함(頑麻, 不知痛痒)을 이른다.

[校註]

[10] 王冰：“穀이 胃에 들어옴에 氣는 肺氣와 함께 傳해지고, 精專者(精을 오로지 하는 것, 오로지 精한 것)는 위로 經隧로 올라간다. 이로 말미암아 水穀의 精氣가 衛氣와 합해져 운행해서 脈으로 들어간다.(內穀爲實 穀入於胃 氣傳於肺 精傳者上行經隧 由此故水穀精氣 合榮氣運行 而入於脈也)”

[11] 張志聰：“營衛의 운행됨이 막히면 皮膚에 營養할 수 없으므로 不仁하게 된다.(營衛行滯 則不能營養於皮膚 故爲不仁)”

馬蒔：“痺病이 不仁해지는 것은 皮膚중에 적은 氣血로 運營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皮膚가 頑固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不仁하게 된다.(痺之所以不仁者 以其皮膚之中少氣血以爲之營運 故皮頑不動而爲不仁也)”

吳崑<sup>11)</sup>：“營’은 血이다. 皮膚의 사이에 營血이 充養하지 못하게 되면 皮膚가 頑固해져서 有無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을 ‘不仁’이라 이른다.(營血也 皮膚之間無營血充養 則皮頑不知有無 名曰不仁)”

[考察]

皮膚가 人身의 防禦기전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皮膚에 충만되어진 血氣로 인해 유지된다. 이것은 衛氣의 도움을 받아 五臟六腑의 활동으로 생성된 水穀之精氣가 皮膚에 운반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皮膚는 外部의 寒邪로부

터 正氣를 保護하는 기능을 비로소 갖추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皮膚의 감각이 쇠퇴하는 不仁症은 營衛의 운행이 막혀 皮膚가 營養을 받지 못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榮衛의 氣도 사람으로 하여금 痺하게 하는지요?”

岐伯이 말하길 “榮이라는 것은 水穀 중의 精氣인지라, 五臟을 調和시키고, 六腑에 散布되다가 이에 經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經脈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五臟을 관통하다가 六腑에 運絡합니다. 衛氣는 水穀 중의 悍氣로 그 기운이 사납고 빠르며 매끄럽고 날랜지라 經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皮膚 속과 分肉의 사이를 따라 돌며, 盲膜(황경막)을 熏蒸해주고 胸腹에 흠어집니다.

그 (榮衛)氣의 순행에 역행하면 병이 들고, 그 氣의 순행에 순종하면 병이 낫게 되는데, 風·寒·濕氣가 습하지 않기 때문에 痺證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홀륭하십니다. 痺證이 혹 통증이 있기도 하고, 혹은 아프지 않기도 하며, 혹은 不仁하기도 하며, 혹은 寒冷하거나 혹 熱나기도 하며, 혹은 (피부가)乾燥하기도 하고 혹 濕하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어째서 인지요?”

岐伯이 말하길 “痛症이 있는 것은 寒氣가 많은 것이며, 寒氣가 많으면 痛症이 있게 됩니다. 痛症이 없는 것과 不仁 하는 것은 病이 오래 지속되어 邪氣가 깊이 들어가서 榮衛의 운행이 지체되었다가 經絡이 이따금 疏通되기 때문에 痛症이 없는 것이며, 皮膚가 營養을 받지 못하므로 不仁症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原文] <素問·刺要論 第五十>

“黃帝問曰 願聞刺要。”

“岐伯對曰 病有浮沈 刺有淺深 各至其理 無過其道. 過之則內傷 不及則生外壅 壅則邪從之. 淺深不得

11) 《內經素問吳注》明·吳崑 注, 山東中醫學院 中醫文獻研究室 校點,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4.

反爲大賊 內動五臟 後生大病. 故曰 病有在毫毛腠理<sup>[12]</sup>者 有在皮膚者 有在肌肉者 有在脈者 有在筋者 有在骨者 有在髓者. 是故刺毫毛腠理無傷皮 皮傷則內動肺 肺動則秋病溫瘧 沂沂然寒慄.”

[校註]

[12] 王氷注：“毛之長者曰毫，皮之文理曰腠理，然二者 皆皮之可見者也.”

[考察]

針刺의 深淺을 말하는 本文에서는 毫毛腠理와 皮膚의 구별을 말하고 있는데, 王氷은 “털 중의 긴 것을 ‘毫’하고 하며, 皮의 文理(무늬결)를 ‘腠理’라고 하는데, 두 가지는 모두 皮 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毫毛腠理는 皮膚 중의 얇은 表面의 組織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현대적인 皮膚의 분류 중 ‘表皮’에 해당 되는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直譯]

黃帝께서 물어 말씀하시길 “바라옵건대 針刺의 要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말하길 “病處에는 浮沈의 차이가 있고, 針刺하는 데에는 淺深의 구분이 있으니, 각기 그 이치에 합당하게 하되 그 방법이 지나치게 하면 안됩니다.(刺鍼의 깊이가) 지나치면 내부가 상하고, (刺鍼의 깊이가) 미치지 못하면 외부에 壅滯됨이 생기며, 壅滯되면 邪氣가 이를 좇아 들어오게 됩니다.(刺鍼時) 淺深의 적당한 정도를 얻지 못하면 도리어 大賊이 되어 안으로 五臟을 요동하게 하여 뒤에 큰 病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말하길 ‘病에는 毫毛腠理에 있는 것이 있고, 皮膚에 있는 것이 있고, 肌肉에 있는 것이 있고, 脈에 있는 것이 있고, 筋에 있는 것이 있고, 骨에 있는 것이 있으며, 髓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毫毛나 腠理를 刺鍼할 때에는 皮膚를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皮가 상하면 안

으로 肺를 搖動시키고, 肺가 搖動하면 가을에 溫瘧 증을 앓게 되어 바들바들 惡寒戰慄하게 됩니다.”

[原文] <素問·皮部論 第五十六>

“是故百病之始生也 必先於皮毛. 邪中之 則腠理開 開則入客於絡脈 留而不去 傳入於經 留而不去 傳入於腑 虞<sup>①</sup>於腸胃.”

“邪之始入於皮也 沂然<sup>②</sup>起毫毛 開腠理 其入於絡也 則絡脈盛色變 其入客於經也 則感虛 乃陷下 其留於筋骨之間. 寒多則筋攣骨痛 熱多則筋弛骨消 肉爛鬪破毛直而敗<sup>③</sup>.”

“帝曰 夫子言皮之十二部 其生病皆何如.”

“岐伯曰 皮者 脈之部也<sup>[13]</sup> 邪客於皮 則腠理開 開則邪入客於絡脈 絡脈滿 則注於經脈 經脈滿 則入舍於腑臟也. 故皮者有分部不與而生大病也.”

(字句解)

① 王氷注：“虞，積也，聚也.”

② ‘沂然’은 寒氣가 들어 오씩하는 모양.

③ ‘毛直而敗’는 津液이 不足하여 皮毛가 枯槁되는 것을 말한다.

[校註]

[13] 皮膚의 部分 즉 脈氣가 循行하는 곳의 皮膚 領域을 말한다. 王氷注：“脈氣留行 各有陰陽 氣隨經所過部主之 故云脈之部.”

[考察]

皮膚는 단순히 몸의 外廓에 分布하는 조직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皮라는 것은 脈의 府니, 邪氣가 皮에 침입하면 腠理가 열리고 腠理가 열리면 邪氣가 絡脈에 들어와 머물고, 絡脈이 滿해지면 經脈으로 流入되며, 經脈이 滿해지면 臟腑에 들어가 깃들게 되는 것으로 이로써 皮는 人體 十二經脈과 유기적인 연결을 함으로써 각 經脈의 氣運을 받은 十二皮膚의 영역이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또한 疾病이 皮膚를 통하여 表에서 裏로 傳해가는 차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後世의 傷寒, 溫病의 傳變規律 및 그 治療原則이 모두 本段의 觀點과 一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直譯]

“이런 연고로 모든 病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皮毛로부터 먼저하며, 邪氣가 그곳에 적중하면 腠理가 열리고, 腠理가 열리면 絡脈에 들어가 머물고, 머물러서 떠나지 않으면 經으로 傳入되며, 經에 머물러 떠나지 않으면 府에 傳入되고, 腸胃에 모여 쌓입니다. 邪氣가 처음 皮에 들어옴에는 오직 오직 毫毛를 곧게 일으켜 세우고 腠理를 열며, 그것이 絡에 들어가면 絡脈이 盛해지고 색이 변하며, 그것이 經에 들어가 머물면 虛한 것을 感知하여 아래로 스며듭니다. 그것이 筋骨의 사이에 머무름에 寒함이 많으면 筋이 拘攣하고 骨이 아프며, 熱이 많으면 筋이 弛緩되고 骨이 枯渴하며, 肉이 消燦하고 腠이 파괴되며, 毛가 말라 곳곳해지면서 망가집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선생님께서 皮의 十二部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病을 發生하게 함에는 모두 어떠한지요?”

岐伯이 말하길 “皮라는 것은 脈이 部이니, 邪氣가 皮에 침입하면 腠理가 열리고 腠理가 열리면 邪氣가 絡脈에 들어와 머물고, 絡脈이 滿해지면 經脈으로 注入되며, 經脈이 滿해지면 腑臟에 들어가 깃 듭니다. 그러므로 皮라는 것에는 分部가 있으니, 治癒하지 않으면 큰 病을 發生합니다.”

[原文] <素問·水熱穴論 第六十一>

“帝曰 諸水皆生於腎乎。”

“岐伯曰 腎者牝藏也 地氣上者 屬於腎 而生水液也. 故曰 至陰勇而甚 則腎汗出 腎汗出逢於風 內不得入於臟腑 外不得越於皮膚 客於玄府 行於皮裏 傳爲附腫 本之於腎 名曰風水<sup>[14]</sup> 所謂玄府者 汗空也.<sup>[15]</sup>”

[校註]

[14] 王冰：“勇(入房)함에 수고로와 땀이 나오면 玄府가 열리고 땀이 나옴에 바람을 만나면 玄府가 다시 닫히고, 玄府가 닫힘이 끝나면 남은 땀이 아직 배출되지 못하고 안으로 皮膚에 潛伏하였다가 傳化하여 水가 되는데, 風으로부터 해서 水가 되므로 風水라고 말하는 것이다.(勇而勞甚 爲力房也. 勞勇汗出則玄府開 汗出逢風則玄府復閉 玄府閉已則 餘汗未出 內伏皮膚 傳化爲水 從風爲水 故曰風水)”

[15] 張介賓：“汗은 水에 속하고 水의 色은 玄하며, 汗이 머무는 곳이므로 玄府라고 한다. 구멍으로부터 나오므로 汗孔이라고 한다. 그러나 汗의 氣化함으로 말미암아 玄微한 곳으로 나가므로 이것 역시 玄府의 뜻이기도 한다. (汗屬水 水色玄 汗之所居 故曰玄府. 從孔而出 故曰汗孔. 然汗由氣化 出乎玄微 是亦玄府之義)”

[考察]

王冰의 注에 따르면 入房등의 內傷에 의해서도 腎汗 즉 內部 臟器가 무리하게 수고하여 땀이 나오면 이것이 玄府 즉 땀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으며, 風邪에 의해서 皮膚안에 잠복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皮膚는 五臟六腑와의 관련성을 보이며 또한 汗이 머무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의 땀샘(汗腺)이 皮膚의 범주에 속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水病이 다 腎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길 “腎이라는 것은 (陰에 속하는) 牝臟으로, 地氣가 올라가는 것이 腎에 歸屬하여 水液을 생하므로 至陰이라고 합니다. 勇力하여 수고로움이 심하면 腎汗이 나오고, 腎汗이 나옴에 風邪를 만나면, 안으로 臟腑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밖으로 皮膚에 泄越하지도 못하여 玄府에 머물러 있거나 皮膚의 속에 流行하다가 傳變하여 附腫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원인이) 腎臟이 根本이니 이름하여 風水라고 합니다. 이른바 玄府라는 것은 汗空입니다.”

[原文] <素問·水熱穴論 第六十一>

“帝曰 夏取盛經分腠何也.”

“岐伯曰 夏者火始治 心氣始長 脈瘦氣弱 陽氣留溢 熱熏分腠 內至於經. 故取盛經分腠 絕膚而病去者 邪居淺也 所謂盛經者 陽脈也.”

[考察]

여름철은 火氣가 旺盛하여 陽氣가 流溢한데 邪氣가 皮膚를 통해 침범하게 되면 병리적인 陽氣가 넘쳐흘러 熱氣가 經脈에까지 전달되게 된다. 이 때의 치료방법은 刺針하여

膚를 찔러 邪氣를 除去하게 된다. 이로 보건대 皮膚는 외부환경의 자극을 內部의 經脈을 통해 안으로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六氣의 侵入을 防禦하는 작용이 있으며 邪氣를 제거 할 수 있는 치료처가 됨을 알 수 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여름에 盛經과 分肉·腠理 사이에서 邪氣를 치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였다

岐伯이 말하길 “여름철은 火氣가 주재하기 시작하여 心氣가 비로소 길러지니 (邪氣가 침범하면) 血脈이 가늘어지고 기운이 약해지고 병리적인 陽氣가 넘쳐흘러 熱氣가 分肉과 腠理를 혼증하다가 속으로 經脈에 이르기 때문에 盛經과 分肉·腠理 사이에서 邪氣를 치료하게 됩니다. 자침하여 皮膚를 찔고 들어가면 病邪가 제거되는 것은 邪氣가 淺部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이른바 盛經이라 한 것은 (병리적인 陽氣가 넘쳐흘러) 皮膚에 떠올라 나타나는 陽脈(絡脈)입니다.”라고 하였다.

[原文] <素問·調經論 第六十二>

“帝曰善 (氣)有餘不足奈何.”

“岐伯曰 氣有餘則喘咳上氣 不足則息利少氣. 血氣未併 五臟安定 皮膚微病 命曰白氣微泄.”

...

“帝曰 經言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 余已聞之矣 不如基所由然也.”

“岐伯曰 陽受氣於上焦 以溫皮膚分肉之間 令寒氣在外 則上焦不通 上焦不通 則寒氣獨留於外 故寒慄.”

...

“帝曰 陽盛生外熱奈何.”

“岐伯曰 上焦不通利 則皮膚致密 腠理閉塞 玄府不通 衛氣不得泄越 故外熱.”

[考察]

三焦의 역할은 결국 皮膚에까지 그 營衛의 氣血을 운반하여 陽氣의 활동을 充滿하게 하는 것이 주된 임무임을 알 수 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홀륭하십니다. 氣가 有餘하고 不足함에는 어떠한지요?”

岐伯이 말하길 “氣가 有餘하면 喘咳하고 上氣하며, 氣가 不足하면 呼吸은 부드러우나 숨쉬는 기운이 약합니다. 血氣가 아직 치우쳐 취함되지 않고 五臟이 安定된 경우에는 皮膚에 병들게 한 것이 미약하니 ‘폐가 주관하는 기(백기)에 누설이 미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經에서 陽分의 精氣가 허약하면 外부가 寒冷해지고 陰分의 精氣가 허약하면 내부에 열이 나며 陽分에 邪氣가 왕성하면 外부에 열이 나고 陰分에 邪氣가 왕성하면 內부가 寒冷해진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미 그러한 것을 들었으나 그 까닭이 그러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岐伯이 말하길 “陽分의 精氣는 上焦로부터 氣를 받아들여 皮膚와 分肉의 사이를 따뜻하게 덥혀 주는데, 지금 寒氣가 밖에 있으면 上焦가 통하지 못하게 되고, 上焦가 통하지 못하면 寒氣가 홀로 밖에 머무르게 되므로 寒慄하는 것입니다.”

...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陽分의 精氣가 왕성하여 외부에 열이 날 경우는 어떠합니까?”

岐伯이 말하길 “上焦가 원활하게 통하지 못하면 皮膚가 緻密해지고 腠理가 폐색되고 汗구멍도 통하지 못하게 되니 이로 인해 衛氣가 발설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열이 나게 됩니다.”

[原文] <素問·調經論 第六十二>

“帝曰 風雨之傷人奈何.”

“岐伯曰 風雨之傷人也 先客於皮膚 傳入於孫脈 孫脈滿則傳入於絡脈 絡脈滿則輸於大經脈 血氣與邪併客於分腠之間 其脈堅大 故曰實. 實者 外堅充滿不可按之 按之則痛.”

“帝曰 寒濕之傷人 奈何.”

“岐伯曰 寒濕之中人也 皮膚不收 肌肉堅緊 榮血泣 衛氣去 故曰虛. 虛者 聶辟<sup>①</sup>氣不足 按之則氣足以溫之 故快然而不痛.”

(字句解)

① ‘聶辟’은 ‘皮膚가 皺折(주름잡히다)’, ‘氣怯弱不足’의 뜻으로 풀이된다.

[考察]

皮膚는 外部環境에 의한 六氣의 侵犯時에 제일 먼저 방어기전의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각 臟腑와 經絡이라는 조직을 통하여서 서로간에 氣血의 運送 및 正氣의 虛損을 反影하는 곳으로 認識할 수 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風雨(陽邪)가 사람을 상하게 함은 어떠한지요?”

岐伯이 대답하길 “風雨가 사람을 傷하게 함에, 먼저 皮膚에 침입하고, 孫脈에 傳入되며, 邪氣가 孫脈이 충만되면 絡脈으로 傳入되고, 邪氣가 絡脈에 충만되면 큰 經脈에 傳輸됩니다. 血氣와 邪氣가 아울러서 分肉腠理 사이에 침입하면, 그 脈象이 堅大해지므로 實證이라고 합니다. 實證은 피부 표면이 단단하고 充滿되어 누를 수 없고, 누르면 아픔니

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寒濕(陰邪)이 사람을 상하게 함은 어떠한지요?”

岐伯이 말하길 “寒濕이 사람에게 的中함에는, 皮膚는 수렴되지 못하면서 肌肉이 堅緊해지고 榮血은 凝滯되면서 衛氣가 떠나가게 되므로 虛하다고 합니다. 虛하면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면서 軟弱無力하여 精氣가 부족하니, 이를 눌러주면 衛氣가 충족되어 따뜻하게 되기 때문에 시원하면서 아프지 않습니다.”

[原文] <素問·五運行大論 第六十七>

“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 肺生皮毛 皮毛生腎.<sup>[16]</sup>”

“其在天爲燥 在地爲金 在體爲皮毛 在氣爲成 在臟爲肺.”

[校註]

[16] 張介賓 注 : “此西方之生化也, 明此者可以治肺補腎.”

[考察]

皮膚는 六氣중에 燥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이는 五臟六腑중의 肺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기관이며, 아울러 腎臟과 밀접한 相生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直譯]

西方은 燥를 生하고 燥는 金을 生하고, 金은 辛을 生하고 辛은 肺를 生하고, 肺는 皮毛를 生하고 皮毛가 腎을 生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어서는 燥가 되고 땅에 있어서는 金이 되고, 몸에 있어서는 皮毛가 되고 氣에 있어서는 成熟이 되고, 臟에 있어서는 肺가 됩니다.

## 2. 黃帝 內經 靈樞

[原文] <靈樞·經脈 第十>

“黃帝曰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道

以通 血氣乃行”

[考察]

皮膚은 인체의 구성요소 중 가장 외곽의防禦를 담당하는 구조물이며, 毛髮은 피부에 속하여 피부의 역할의 일부를 담당함을 알 수가 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처음 생겨날 때 먼저 精이 이루어지고 精이 이루어진 다음 腦髓가 생성되며 骨은 기둥이 되고 脈은(血氣를) 運營함(관개함)이 되며, 筋은 堅剛함이 되고(굳세게 뼈를 묶어 지탱하고) 肉은 담이 되며 피부는 견고해지고 머리털은 길어지며 음식물이 뱃에 들어가면 經脈이 통하게 되고 血氣가 이에 순행합니다.”

[原文] <靈樞·脈度 第十七>

“黃帝曰 氣獨行五臟 不榮六腑 何也.”

“岐伯答曰 氣之不得無行也 如水之流 如日月之行不休 故陰脈榮其臟 陽脈榮其腑 如環之無端 莫知其紀 終而復始 其流溢<sup>①</sup>之氣 內溉臟腑 外濡腠理.”

(字句解)

① 張介賓：“流란 內部에서 흐르는 것이고, 溢이란 外部로 넘치는 것이다.”

[考察]

氣의 흐름은 안으로는 臟腑와 밖으로는 腠理에 끊임없이 서로 連繫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陰脈의 氣가 오직 五臟으로만 운행하고 六腑를 영양하지 않음은 어째서 인지요?”

岐伯이 말하길 “脈氣는 운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고 해와 달이 쉬지 않고 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陰脈은 五臟을 영양하고 腸脈은 六腑를 영양하는데, 마치 등근 고리처럼 끝도 없고 그 실마리도 알 수가 없으며 끝나면 다시 시작합니다. 그 흘러 넘치는 氣는 안으로는 五臟과 六腑에 스며들어

관개하고 밖으로는 腠理를 적셔줍니다.”

[原文] <靈樞·營衛生會 第十八>

“黃帝曰 人有熱 飲食下胃 其氣未定 汗則出 或出於面 或出於背 或出於身半 其不循衛氣之道而出 何也.”

“岐伯曰 此外傷於風 內開腠理 毛蒸理泄<sup>①</sup> 衛氣走之 固不得循其道 此氣慄悍滑疾 見開而出 故不得從其道 故命曰漏泄<sup>②</sup>.”

(字句解)

① 毛蒸理泄：皮毛가 風熱邪에 의하여 熏蒸되어 腠理가 열린 것을 가리킨다.

② 漏泄：皮膚·腠理가 風邪에 傷하여 衛氣가 皮膚를 護衛하지 못하고 땀이 나므로 ‘漏泄’이라 한다.

[考察]

皮毛는 外感六氣의 侵犯에도 가장 먼저 반응을 함과 동시에 몸 안의 衛氣活動의 最外廓部分으로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가 있고, 아울러 皮膚에는 皮毛와 腠理 또한 一連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皮膚의 범주에 포함됨을 알 수가 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인체에 熱이 있으면 음식물이 뱃에 내려가서 그 精氣가 아직 정해지지 않음에 땀이 나오는데, 혹 얼굴에 나기도 하고 혹 등에 나기도 하며 혹 몸의 윗도리나 아랫도리에 나는데, 그것이 衛氣가 운행하는 길을 따라 나오지 않으니 어째서 인지요?”

岐伯이 대답하길 “이것은 밖으로 風에 상하여 안으로 腠理를 열고 털이 熏蒸되어 腠理가 열려 衛氣가 달려나가니, 진실로 원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 이 氣는 급하고 사나우며 매끄럽고 빠른지라 열린 틈이 보이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로 漏泄이라고

합니다.”

[原文] <靈樞·五邪 第二十>

“邪在肺 則病皮膚痛 寒熱<sup>[1]</sup> 上氣喘 汗出 欬動肩背 取之膺中外腋 背三節五臟之傍 以手疾按之 快然 乃刺之 取之缺盆中以越之.”

[校註]

[1] 張志聰：“邪氣가 五臟에 있으면 病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六府가 皮肉筋骨에 應하는 것은 臟腑가 雌雄으로 相合하는 것이다. 五臟이 밖으로 應하는 것은 陰陽의 기운이 모두가 出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寒熱이란 것은 皮膚에 寒熱이 생기는 것인데 대개 藏은 陰이 되고 皮膚는 陽이 되어 表裏의 기운이 안팎으로 相乘하는 까닭으로 肅기도 하고 熱이 나기도 한다.”

(此承上文復論 邪在五藏而病於外也 夫六府之應於皮肉筋骨者 臟腑雌雄之相合也 五藏之外應者陰陽之氣 蓋有出有入也 肺主皮毛 故邪在肺則病皮膚痛 寒熱者 皮寒熱也 蓋藏爲陰而皮膚爲陽 表裏之氣外內相乘 故爲寒爲熱也)

[考察]

五臟六腑의 病이 들었을 때 臟腑에 邪氣가 곧 皮膚에 痛症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고, 안의 五臟의 상태에 따라 皮膚에 寒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肺에만 局限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內部臟器 전체와 皮膚와는 서로 連繫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直譯]

邪氣가 肺에 있으면 病으로 피부가 아프고, 惡寒發熱이 생기며, 氣가 上逆하여 숨이 가쁘고 汗이 나며, 기침을 할 때에 어깨와 등이 들썩입니다. 흉부 외측의 脇穴과 등에서 제3추골 옆을 취하되 손으로 재빨리 눌러서 시원한 느낌이 들면 이에 鍼을 놓습니다. 缺盆 가운데를 취하여 邪氣를 泄越 시켜야 합니다.

[原文] <靈樞·口問 第二十八>

“黃帝曰 人之振寒<sup>①</sup>者 何氣使然.”

“岐伯曰 寒氣客於皮膚 氣盛 陽氣虛 故爲振寒寒慄<sup>②</sup> 補諸陽.”

(字句解)

① 振寒은 추위한다는 뜻이다. ‘振’은 ‘發’과 같다.

② 慄：부들부들 떠는 것이다.

[考察]

皮膚는 外部 寒邪로부터 人體를 保護하며 體溫을 維持시키고 동시에 陽氣의 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아서 人體를 保護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추워서 떨리는 것은 어느 氣에 의하여 생기는지요?”

岐伯이 대답하길 “寒氣가 피부에 침입하면 陰氣가 盛하고 陽氣가 虛해지므로 추워서 떨립니다. 여러 陽氣를 補해야 합니다.”

[原文] <靈樞·決氣 第三十>

“岐伯曰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何謂氣?”

岐伯曰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漑 是謂氣.

何謂津?

岐伯曰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

何謂液?

岐伯曰 穀入氣滿 淖澤注於骨 骨屬屈伸 洩澤補益腦髓 皮膚潤澤 是謂液.”

[考察]

皮膚는 三焦의 作用으로 輸布되는 津液의 滲泄作用을 통하여 정상적인 體液의 代謝活動을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

[直譯]

岐伯께서 말씀하시길 “두 神이 서로 교합하여

형체를 이루는데, 항상 신체보다 먼저 생기는 것을 일컬어 精이라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을 氣라고 하는지요?”

岐伯께서 말씀하시길 “上氣가 開發되어 五穀의 氣味를 분포·확산시켜 皮膚를 훈증하고 몸을 충실하게 하며 털을 윤택하게 하는데, 마치 안개나 이슬이 만물을 적시는 것과 같으니 이를 일컬어 氣라고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을 津이라고 하는지요?”

岐伯께서 말씀하시길 “腠理가 열려 새어나가면 땀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일러 津이라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을 液이라고 하는지요?”

岐伯께서 말씀하시길 “水穀이 들어가 穀氣가 가득 차면 뼈에 주입되어 습윤하게 함으로써 관절을 屈伸케 하고 새어나와 腦髓를 윤택하게 하고 補益하며 皮膚를 윤택하게 하는데 이를 液이라 합니다.”

[原文] <靈樞·五癯津液別 第三十六>

“岐伯曰 水穀皆入於口 其味有五 各注其海 津液各走其道<sup>[2]</sup> 故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 爲其津 其流而不行者爲液. 天暑衣厚則腠理開 故汗出 寒留於分肉之間 聚沫則爲痛. 天寒則腠理閉 氣濕不行 水下留於膀胱 則爲溺與氣.”

[校註]

[2] 楊上善: “눈은 눈물의 통로이고, 腠理는 땀의 통로이며, 廉泉穴은 涎液의 통로이고, 코는 콧물의 통로이며, 입은 唾液의 통로이다.”

[考察]

皮膚는 三焦의 活動으로 받은 津液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氣溫의 변화에 따라 體液을 排出시키거나 혹은 膀胱으로 보내어 小便을 만들어 냄으로써 人

體 正氣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直譯]

岐伯께서 말씀하시길 “水穀은 모두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맛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 각기 그 상응하는四海로 주입되며 津液은 각기 그 일정한 길을 따라 분포됩니다. 그러므로 三焦에서 나온 氣는 肌肉을 따스하게 하고 皮膚를 충실하게 자양하는데 이것이 그 중의 津이고 그것이 흐르긴 하나 순행하지 않은 것이 液입니다. 날씨가 더울 때 옷을 두껍게 입으면 腠理가 열리므로 땀이 나옵니다. 寒邪가 分肉 사이에 머물러 津液이 모여 침이 되면 통증이 생깁니다. 날씨가 차면 腠理가 닫혀 氣와 水濕이 행하지 않는데 水液은 아래로 膀胱에 머물면 소변과 氣로 변합니다.”

[原文] <靈樞·本藏 第四十七>

“黃帝曰 願聞六腑之應.”

“岐伯對曰 肺合大腸 大腸者 皮其應. 心合小腸 小腸者 脈其應. 肝合膽 膽者 筋其應. 脾合胃 胃者 肉其應. 腎合三焦膀胱 三焦膀胱者 腠理毫毛其應<sup>[3]</sup>.”

[校註]

[3] 張介賓: “腎은 본래 骨과 배합하나, 이곳에서는 ‘三焦膀胱者, 腠理毫毛其應’ 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예컨대 <五癯津液別>에서 ‘三焦에서 氣가 나와 肌肉을 따스하게 하고 皮毛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곳에서 腠理毫毛와 相應한다고 한 것이다”

[考察]

六腑중의 大腸이 肺와 더불어 皮膚의 건강상태와 이상유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張介賓의 註를 참조하여 볼 때, 腎臟과 相合관계인 三焦·膀胱또한 腠理·毫毛와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바라옵건대, 六腑와의 상응관계를 듣고 싶습니다.”

岐伯께서 대답하길 “肺는 大腸과 배합되고 大腸은 피부가 그에 상응합니다. 心은 小腸과 배합되고 小腸은 脈이 그에 상응합니다. 肝은 膽과 배합되고 膽은 筋이 그에 상응합니다. 脾는 胃와 배합되고 胃는 肉이 그에 상응합니다. 腎은 三焦, 膀胱과 배합되고 三焦·膀胱은 腠理毫毛가 그에 상응합니다.”

[原文] <靈樞天年 第五十四>

“岐伯曰 五臟堅固 血脈和調 肌肉解利<sup>①</sup> 皮膚緻密 營衛之行 不失其常 呼吸微徐 氣以度行 六腑化穀 津液布揚 各如其常 故能長久.”

...

“七十歲 脾氣虛 皮膚枯.”<sup>[4]</sup>

(字句解)

① ‘解’란 氣가 行하는 도로가 열려 있다는 뜻이다. ‘肌肉解利’란 肌肉 사이의 氣의 行함이 원활하고 잘 통함을 형용한 것이다.

[校註]

[4] 張志聰：“腠理가 성글어지고, 鬚髻이 거의 다 희어지는 것은 陽明과 少陰의 기운이 衰弱해지는 것이다. (腠理空疏 髮頗頹白 陽明少陰之氣衰也)”

[考察]

五臟의 堅固함이 결국 血脈의 調和를 가져오게 되며 이것이 皮膚가 緻密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또한 張志聰의 말과 같이 脾氣의 활동이 皮膚에 도달하는 津液의 흐름에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直譯]

岐伯께서 말씀하시길 “五臟이 堅固하고 血脈이 조화로우며 肌肉이 매끄럽고 피부가 치밀하며 營衛의 운행이 정상을 벗어나지 않고 호흡이 거칠거나 빠르지 않으며 氣가 절도 있게 흐르고 六腑가 水穀을 소화하여 津液을 고루 보내주어 각각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습니다.”

... “七十歲가 되면 脾氣가 虛해지고 皮膚가 윤기를 잃어 마르게 됩니다.”

[原文] <靈樞·五音五味 第六十五>

“黃帝曰 婦人無鬚者 無血氣乎.”

“岐伯曰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 上行會於咽喉 別而絡唇口 血氣盛則充膚熱肉 血獨盛則澹滲<sup>①</sup>皮膚 生毫毛. 今婦人之生 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數脫血也 衝任之脈 不榮口唇 故鬚不生焉”<sup>[5]</sup>

(字句解)

① ‘澹滲’은 血液이 천천히 皮膚에 滲透되는 것을 말한다.

[校註]

[5] 張介賓：“衝任은 血의 바다이고, 수염은 血의 잉여물이니 血이 不足하면 衝任의 脈이 입을 영양하지 못하여 수염이 생기지 않는다.”

楊上善：“婦人은 氣가 많고 血이 적어 衝任脈에 血이 적으므로 입을 榮養하여 毫毛가 생기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다.”

[考察]

皮膚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毫毛와 수염의 발생은 衝任脈의 活動으로 皮膚에 血液의 供給이 圓滑할 때에 비로소 毫毛(잔털)이나 鬚(수염)이 생겨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婦人이 수염이 없는 것은 血氣가 없기 때문인지요?”

岐伯이 대답하길 “衝脈과 任脈은 모두 胞中에서 시작하여 위로 등 속을 순행하며 經絡의 바다가 됩니다. 그 중에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腹部의 오른쪽을 따라 위로 올라가서 인후에 모였다가 갈라져 입술을 연락합니다. 血氣가 虛하면 皮膚를 충실하게 하고 肌肉을 뜨겁게 하며, 血만 홀로 盛하면 皮膚에 스며들어 잔털이 생겨나게 합니다. 지금 婦

人들은 태어날 때부터 氣는 有餘하고 血은 부족한 데 이것은 자주 脫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衝任 脈이 口脣을 영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염이 생겨 나지 못하게 됩니다.”

[原文] <靈樞·百病始生 第六十六>

“是故虛邪之中人也 始於皮膚<sup>[6]</sup> 皮膚緩<sup>[7]</sup>則腠理開 開則邪從毛髮入 入則抵深 深則毛髮立 毛髮立則漸然 故皮膚痛.<sup>[8]</sup>”

[校註]

[6] 張介賓：“이 아래에서는 陽邪가 傳해지는 次序를 말하였다. 邪氣가 人體에 侵入함은 반드시 表에서부터 裏로 들어가니 皮膚로부터 시작된다.”

[7] 楊上善：“皮膚가 邪氣에 적중되어 無力해져 收縮하지 못하므로 皮膚가 弛緩된다.”

張介賓：“表가 虛하면 皮膚가 이완된다. 그러므로 邪氣가 侵襲할 수 있다.”

[8] 張介賓：“寒邪가 衛氣를 傷하면 血과 氣는 凝滯되므로 皮膚가 아프다. 무릇 寒邪가 침습하는 곳은 반드시 시큰거리고 아픈데 어느 經에 속한 것인지를 관찰하면 陰에 있는지 陽에 있는지 혹은 깊은지 얕은지를 이로부터 알 수 있다.”

[考察]

人體의 氣血이 虛損하게 되어 皮膚의 機能이 緻密하지 못할 때 腠理가 열리면서 邪氣는 곧 毛髮을 따라서 侵入하게 되며, 이는 곧 皮膚의 안쪽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결과를 낳게되어 이로써 皮膚全體의 氣血의 運營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피부에까지 도달하는 氣血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켜서 痛症이 發生하는 것으로 보아 皮膚·腠理·毛髮이 일련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피부의 기능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直譯]

이렇기 때문에 虛邪가 人體에 침입함에 피부에서 시작하는데, 피부가 이완되면 腠理가 열리고, 腠理가 열

리면 邪氣는 毛髮을 따라 들어가며, 들어가면 깊은 곳에 이르고 깊어지면 毛髮이 곧추 서고 毛髮이 곧추서면 몸이 오싹해지므로 피부가 아픕니다.

[原文] <靈樞·刺節眞邪 第七十五>

“虛邪之中人也 洒淅<sup>①</sup>動形 起<sup>②</sup>毫毛而發腠理. 其入深 內搏於骨 則爲骨痺. 搏於筋 則爲筋攣. 搏於脈中 則爲血閉不通 則爲癰. 搏於肉 與衛氣相搏, 陽勝者, 則爲熱, 陰勝者 則爲寒 寒則眞氣去 去則虛 虛則寒. 搏於皮膚之間 其氣外發 腠理開 毫毛搖 氣往來行 則爲癢 留而不去 則痺. 衛氣不行 則爲不仁<sup>③</sup>.”

(字句解)

① ‘洒淅’은 추워서 떠는 것이다(寒慄).

② ‘起’는 털이 곧두서는 것을 말한다.

③ ‘不仁’ 衛氣가 損傷 당하여 行하지 못하여 痛痒을 모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考察]

虛邪가 人體에 侵入하면 추위에 떨고 형체를 動하며 숨털이 일어서고 腠理가 열리게 됨으로써 人體 內部로 깊숙이 病邪가 들어가는 원인이 되며 以後에 氣가 往來하면 癢痒症이 되기도 하고, 머물러 제거되지 않으면 痺症이나 不仁症이 되는 것으로 皮膚는 內部 正氣의 상태에 따라서 外邪와의 반응이 결정되며 또한 症狀에 있어서 가려움증과 痺症 및 不仁症의 특징을 갖게 된다.

[直譯]

虛邪가 人體에 침입하면 추워서 떨고 형체를 動하며 숨털이 일어서고 腠理가 열립니다. 그것이 깊이 들어가 안에서 骨에 迫近하면 骨痺가 되고, 筋에 迫近하면 筋攣이 되며, 脈 속에 迫近하면 血이 막혀 통하지 않아 癰이 되고, 肌肉에 迫近하면 衛氣와 서로 싸우는데 陽이 왕성하면 熱證이 되고 陰이 왕성하면 寒證이 되는데 寒證이면 眞氣가 사라지고 眞氣가 사라지면 虛해지며 虛하면 차갑습니다. 그 피부 사이에 迫近하면 그 氣가 밖으로 퍼져 腠理가



열리고 숨털이 요동하여 氣가 왕래하고 行하면 癢症이 됩니다. 머물러 제거되지 않으면 이 痺證되고 衛氣가 行하지 않으면 不仁이 됩니다.

[原文]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一者 天也 天者 陽也 五臟之應天者肺 肺者 五臟六腑之蓋也 皮者 肺之合也 人之陽也 故爲之治鍼 必以大其頭而銳其末 令無得深入而陽氣出.”

[考察]

五臟에 있어서 天에 相應하는 것이 肺이고, 肺는 五臟六腑의 華蓋이며, 皮膚는 肺와 配合되며 사람의 陽이 된다는 皮膚組織의 전체적인 韓醫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直譯]

一은 天이고 天은 陽입니다. 五臟에서 天에 상응하는 것은 肺이고 肺는 五臟六腑의 華蓋입니다. 피부는 肺와 배합되며 사람의 陽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스리기 위해 鍼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머리를 크게 하고 그 끝을 예리하게 하여 깊숙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면서 陽氣가 빠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原文] <靈樞·癰疽 第八十一>

“黃帝曰 余聞腸胃受穀 上焦出氣 以溫分肉 而養骨節 通腠理.”

[考察]

胃腸이 飲食物을 腐熟한 然後에 上焦의 도움을 받아서 皮膚에까지 氣運이 通하게 하고 있음을 통해서 飲食內傷의 질환을 통해서도 皮膚의 질환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시길 “내가 듣건대 腸胃가 水穀을 받아들인 다음 上焦로 氣가 나와서 分肉을 따뜻하게 하고 骨節을 영양하며 腠理를 소통시킵니다.”

### III. 總括 및 考察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醫學에서 말하는 皮膚는 「素問·湯液醪醴論 第十四」에서 말하는 것처럼, ‘外部의 六氣에 가장 먼저 反應을 하는 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組織’임을 알 수가 있으며, 「素問·玉機眞藏論 第十九」의 내용처럼 ‘邪氣가 皮膚의 組織에 직접적으로 반응이 오기 전에 毫毛가 우선 반응을 보인 然後에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皮膚組織의 기능을 細分化하여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음에 「素問·瘡論」에 나타난 개념은 “汗孔 즉 땀구멍이 성글어지면서 腠理가 열리며 이로 인해 皮膚에 水氣가 머무르게 된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皮膚에 사기가 직접 닿기 전에 毫毛와 汗孔 그리고 腠理를 거치면서 비로소 皮膚에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靈樞·五音五味」에서는 衝·任脈의 活動이 활발하여 皮膚에 혈액공급이 잘되어야 毫毛(잔털)와 수염(鬚)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百病이 始生할 때 맨 먼저 皮膚에 侵入을 한다는 말속에는 광범위한 皮膚 즉 汗孔·腠理·毫毛·毛髮·鬚 등이 포함되는 개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素問·刺要論」에서도 毫毛·腠理는 皮膚중의 얇은 표면에 해당하는 조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素問·皮部論」에서는 皮膚와 各 臟府와의 연관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經絡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더욱더 발전하여 十二皮部의 개념을 추가하여 身體外廓의 表皮面을 該當臟腑와 밀접하게 연계시켜 놓았다.

皮膚의 機能을 살펴보면, 「靈樞·九針論」에서와 같이 五臟에 있어서 天에 相應하는 것이 肺이고, 肺는 五臟六腑의 ‘華蓋’이며 皮膚는 肺에 배합되어 사람의 陽이 된다는 개념에서 그 기능을 살

펴볼 수 있고, 『素問·瘧論』, 『素問·水熱穴論』, 『素問·調經論』, 『靈樞·口問論』 등을 통해서 皮膚는 外感 六氣의 영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人體의 體溫을 조절하고 皮膚와 腠理, 皮毛의 一連의 작용들을 통해서 身體를 防禦하기도 하며 正氣의 弱화로 인하여 邪氣가 머무르는 곳이 되기도 하는 곳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素問·痺論』, 『靈樞·五邪論』, 『靈樞·五癰津液別』, 『靈樞·結氣』 등에는 皮膚의 방어기전이 內部臟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體液의 대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皮膚의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營衛氣血의 활동인 것을 알 수 있다.

『靈樞·刺節眞邪』에서는 皮膚의 방어기전이 무너졌을 때에 皮膚에 머물러 있는 邪氣와 交爭을 하는 과정에서 正氣의 상태에 따라 皮膚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이 瘙痒症과 痺症·不仁症 등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五臟六腑와의 관계에 있어서 皮膚는 『素問·咳論』에서와 같이 肺의 竅(合)이되므로 外邪가 들어오면 肺에 그 邪氣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素問·調經論』, 『靈樞·癰疽』에서와 같이 三焦의 역할이 胃腸에서 腐熟된 津液이 皮膚의 滋養과 陽氣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靈樞·本藏』에서는 ‘肺合大腸 大腸者皮其應’라는 개념으로 皮膚의 상태를 결정짓는 內藏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靈樞·天年』에서는 脾氣의 虛함이 皮膚의 津液狀態의 枯渴에 영향을 주는 것과 五臟의 堅固함이 결국 血脈의 調和를 가져와서 皮膚가 緻密할 수 있는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素問과 靈樞에 나타나 있는 皮膚에 대한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1. 韓醫學에서 말하는 皮膚는 外部의 六氣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조직이다.

2. 邪氣가 皮膚에 닿기 전에 毫毛와 汗孔·腠理를 거치면서 비로소 皮膚에 반응을 보이게 된다.

3. 韓醫學에서의 皮膚의 개념은 汗孔·腠理·毫毛·毛髮·鬚·爪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 皮膚는 內부의 五臟六腑와 經脈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全身을 또한 十二皮部로 나누어 그 기능을 하고 있다.

5. 人體의 五臟六腑중에 天에 相應하는 肺와 皮膚가 相應하고 있다.

6. 皮膚의 방어기전은 內부 正氣의 상태에 따라서 瘙痒症이나 痺症·不仁症과 같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

7. 皮膚는 肺와의 相應關係 이외에도 大腸과의 相應으로 皮膚의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작용이 있으며, 그밖에 脾氣와 三焦·膀胱 및 衛氣營血의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皮膚의 정상적인 氣血의 운영과 대사활동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皮膚는 단지 肺만이 아닌 五臟六腑 전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現代의인 皮膚의 개념과 상당부분이 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結 論

## 參考文獻

1987.

1. 洪元植 ;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2. 洪元植 ; 精校 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3. 李慶雨 ; 譯解編注 黃帝內經素問, 여강출판사, 서울, 2000.
4. 李慶雨 ; 譯解編注 黃帝內經靈樞, 여강출판사, 서울, 2000.
5. 任應秋 ;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북경, 1986.
6. 강원형外 ; 피부과학,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서울, 2001.
7. 金壽山 ; 正校 韓醫籍字典, 醫聖堂, 서울, 1991.
8. Elaine N. Marieb ; 인체 구조와 기능, 계축 문화사, 서울, 2001.
9. 朴贊國 ; 臟象學, 成輔社, 서울, 1992.
10. 王氷 ; 黃帝內經素問·靈樞註, 大星文化社, 서울, 2000.
11. 金完熙 ;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서울, 1982.
12. 李相股 監修 ;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서울, 1990.
13. 明·吳崑 注 ; 內經素問吳注, 山東科學技術出版社, 山東, 1984.
14. 楊上善 注 ;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15. 高世栻 著, 于天星 按 ; 黃帝內經直譯, 科學技術文獻出版社, 重慶, 1982.
16. 張介賓 原著 ; 類經(上·下冊), 大星文化社, 서울, 1982.
17. 金圭烈 編著 ; 黃帝內經素問匯粹, 일중사, 서울, 1998.
18. 洪元植 ; 中國醫史學, 東洋醫學研究院, 서울,